

도소녀(悼小女)(이규보)

※ 작품 전문 해설

※ <도소녀(悼小女)(이규보)> 기본내용 파악

⇒ 이 작품은 작가가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어린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는 한시이다.

※ 주제 ⇒ 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

- ※ 구성
 - ┌ 1~8행: 딸에 대한 회상
 - ├ 9~14행: 딸을 잃은 슬픔
 - └ 15~24행: 인생에 대한 성찰

어린 딸의 얼굴이 눈같이 희고 <small>비유법 (적유법)</small>	외양	小女面如雪
총명하기 이를 데 없어		聰慧難具說
두 살에 능히 말을 하되		二齡已能言
앵무새보다 능란하였다. <small>알기쉬운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움</small>	비교, 회상	圓於鸚鵡舌
세 살에 수줍음을 아는 듯		三歲似恥人
놀아도 대문 밖을 나서지 않고	성격	遊不越門。
금년이 바로 네 살인데		今年方四齡
능히 길쌈질을 배우기도 했다.		頗能學組紵
어찌하여 빼앗김을 당했는지		胡爲遭奪歸
①갑자기 번개처럼 사라졌어라. <small>비유적 표현을 통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표현함</small>	직유	若駭電滅
비로소 어린 새끼 떨어져 죽는 건	성찰	春雛墮未成
새 둥지 나쁜 탓임을 깨달았노라. <small>부모의 잘못 - 자책감</small>		始覺鳩巢拙
도를 배운 나는 아픈 생각 씹어 삼키나 <small>나는 그래도 도리를 배운 남자라서 괜찮지만</small>	절제	學道我稍寬
아내 울음은 언제 그치려나. <small>어린 아내의 슬픔은 어쩐단 말인가</small>	염려	婦哭何時輟
보건대 밭 가운데		吾觀野田中
곡식의 어린 싹이 돌아날 때 <small>어린 딸을 비유한 소재</small>	비유, 유추	有穀苗初茁
혹시 뜻밖에 우박이 오면 <small>시련과 고난을 비유한 소재</small>		風雹或不時
모두 맞아 꺾어지나니.		撲地皆沒
조물주는 생명을 이미 만들어 내고		造物既生之
조물주는 생명을 또 사정없이 빼앗도다. <small>신에 대한 한탄과 원망</small>		造物又暴奪
피고 시들이 어찌 그리 덧없는가. <small>죽음에 대한 허망함</small>		枯榮本何常
변화함은 도리어 거짓 같도다.	무상감, 덧없음	變化還似謬
인생이 가고 옴이 모두 허깨비거니		去來皆幻爾
◎아서라, 너와는 영영 이별이로구나. <small>영탄법, 탄식과 절망</small>	영탄	已矣從此訣

갈래	한시
성격	애상적, 직서적, 비유적
제재	딸의 죽음
주제	일찍 죽은 딸에 대해 느끼는 부모의 비탄과 인생에 대한 무상함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찍 죽은 딸에 대한 슬픔을 눈앞에 아른거리는 과거의 모습과 대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-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죄의식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- 인생에 대한 본질적 허무함과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